

2016년 2차 경찰국어(2016. 9. 3.) 해설

박우찬

월비스고시학원 국어 강사

신광은경찰팀 실용글쓰기 강사

□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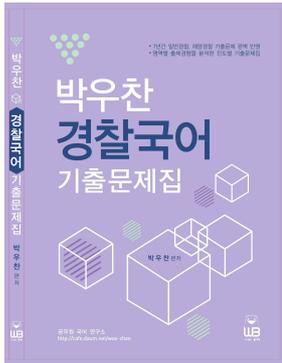
이번 경찰국어 시험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문법 10문제, 문학과 어휘 10문제가 출제되었고, 독해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문법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복합 문제, 국어의 역사에 관한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되었습니다. 문학에서는 조선전기 가사, 조선후기 한문소설과 사설시조가 출제되어 평소에 해당 작품을 공부하지 못한 수험생은 문학 문제를 상당히 어렵게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휘 문제도 문학 작품과 결부되어 출제되었기 때문에 해당 작품에 관한 배경 지식이 없었던 수험생은 어휘 문제를 어렵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번 시험은 특히 경찰 기출 유형, 경찰 기출 작품에 근거하여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직 기출과 연관된 지문도 꽤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기출 문제를 꼼꼼히 분석하고 일반행정, 국회, 법원직 기출 문제를 두루 풀어본 수험생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전체 평균이 내려가면서 조정 점수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어 점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조정 점수 덕분에 합격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국어를 선택한 수험생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2016년 2차 | 문항 수 | 세부 내용 | 출제 영역 |
|----------|------|--|-----------------------------------|
| 문법론 | 6 | 문법론 복합, 형태론과 음운론 복합, 시제 선어말어미, 한글, 국어사(차자 표기), 국어사(후기중세 국어) |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한글과 국어사 |
| 어문 규범 | 4 | 한글 맞춤법(구별해야 할 단어), 맞춤법과 띄어쓰기, 로마자와 외래어 표기, 올바른 문장 구성 | 한글 맞춤법,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표기법, 올바른 문장구성 |
| 문학 | 6 | 조선전기 가사2(사미인곡), 조선후기 한문소설(호질)과 사설시조, 현대시2(모닥불), 현대소설(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맥락 파악 | 고전문헌,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소설 |
| 독해와 작문 | 0 | | |
| 어휘 | 4 | 문학과 어휘(메밀꽃 필 무렵), 속담, 한자어(기미독립선언서), 문학과 한자성어(호질) | 고유어, 속담, 한자어, 한자성어 |

□ 앞으로의 경찰국어 공부 방법론



1. 문법론

- ① 일반 행정 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문법론 전반을 다루는 복합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문법론 전체를 고루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 ② 한글과 국어의 역사가 이번 16년 2차 시험을 포함해서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출제되고 있으므로 기출 문제를 꼼꼼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③ 이번에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문장성분, 문장의 종류, 서술어의 자릿수 문제가 상대적으로 깊이 있게 출제되었습니다.

2. 어문 규범

- ① 일반 행정 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② 경찰국어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세부 규정에서 문제가 밀도 있게 출제되고 있으므로 평소에 '한글 맞춤법' 전체를 자세하게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띄어쓰기를 포함한 맞춤법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3. 문학

- ① 고전문학의 경우 각 시기의 대표적 작품을 해석하고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작품의 기초적인 해석을 중시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② 16년 1차 '관동별곡', 16년 2차 '사미인곡'이 출제되었습니다. 조선전기 가사 작품은 해석이 될 정도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조선 전기 평시조, 조선 후기 사설시조도 대표적인 작품을 미리 봐 두어야 합니다.
- ③ 현대문학도 기출이 된 작품, 중요한 작품을 미리 봐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독해와 어휘

- ① 독해가 비중 있게 출제되지 않지만 평소에 독해 문제의 유형을 익혀 두어야 하겠습니다.
- ② 어휘는 지난번에 적은 대로 최소한 공무원 국어에서 출제된 고유어, 속담, 한자어, 한자성어를 평소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5. 맺음말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경찰국어 기출문제를 자세하게 풀어 보면서 경찰국어 시험 유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다른 직렬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각 영역의 핵심을 정리한다면 17년 1차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 그동안의 경찰직 기출 문제(해설)는 '공무원 국어 연구소' <http://cafe.daum.net/woo-chan>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설은 『박우찬 경찰국어 기출 문제집』(2016. 7. 20.)에 대한 16년 2차 시험 추록도 됩니다.

1. 우리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찰직 16년 2차]

- ① 현대 국어의 표준어에서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의미를 변별할 수 있다.
- ② 우리말의 자음 체계에서 '비음'과 '유음'의 분류는 조음(調音) 위치에 따른 것이다.
- ③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④ 우리말 품사 중 감탄사는 활용하지 않는데 대답할 때 쓰는 '예, 아니요'가 그 예이다.

정답 ② [문법론 일반] 박우찬 경찰국어 기출문제집 20쪽 등

<해설> '비음'과 '유음'의 분류는 조음(調音) '방식'에 따른 것이다.

• 비음(鼻音):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이다. 'ㄹ, ㄴ, ㅇ(종성)'이 있다.

• 유음(流音): 혀끝을 윗잇몸에 대면서 공기를 그 양 옆으로 흘러보내며 내는 소리이다. 'ㄹ'이 있다.

[오답 풀이]

① 현대 국어에서 소리의 길이는 자음, 모음과 함께 음운이 된다.

③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어미 '-(으)면'은 가정 또는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 종속절

↳ 종속적 연결 어미

↳ 주절

④ 독립언인 감탄사는 화자의 느낌을 나타내거나 부름·대답을 표시하는 단어를 말한다. '예, 아니요'는 대답할 때 쓰는 감탄사이다.

2. 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말의 단어 형성 유형을 우선 단일어와 복합어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고, 다시 복합어는 파생어와 합성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합성어의 예로는 ()를 들 수 있는데 이 단어는 발음할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적용된다.

- ① 흠내(명사) ② 저녁내(부사) ③ 끝내(부사) ④ 막내(명사)

정답 ① [형태론과 음운론 복합] 경찰기출 25쪽, 기출 지문 OX

<해설> '흠내'는 합성어의 예가 되고, 발음할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적용된다.

[1] 형태론적 조건: 명사 어근 '흠'과 어근 '내'(냄새)가 결합한 합성어(명사)이다.

[2] 음운론적 조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흠내]로 발음되고, 이어서 비음화에 의해 [흠내]로 발음된다.

• 내: 「명사」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 냄새.

예 고소한 내를 맡다/취취한 내가 나다/밥 타는 내가 온 집 안에 가득하였다.

[오답 풀이]

② '저녁내'는 파생어이고, 발음할 때 비음화가 적용된다.

[1] 형태론적 조건: 명사 어근 '저녁'과 접미사 '-내'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2] 음운론적 조건: 저녁내[저녕내]

• -내: 「1」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기간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뜻을 더하고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예 봄내/여름내/저녁내.

「2」 ((때를 나타내는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때까지'의 뜻을 더하고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예) 마침내/끝내.

• 저녁내: 「부사」 이른 저녁부터 밤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③ '끝내'는 파생어이고, 발음할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적용된다.

[1] 형태론적 조건: 명사 어근 '끝'과 접미사 '-내'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2] 음운론적 조건: 끝내[끝내→끈내]

• 끝내: 「부사」 「1」 ((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끝까지 내내. ≒종내·종시(終是). 「2」 끝에 가서 드디어. ≒종내·종시.

④ '막내'는 사전에서 단일어로 취급되나 어원상 파생어이고, 발음할 때 비음화가 적용된다.

[1] 형태론적 조건: 단일어 또는 파생어. 어원상으로 접두사 '막-'과 어근 '나이'가 결합한 말이다.

[2] 음운론적 조건: 막내[망내]

• 막내: 「명사」 여러 형제, 자매 중에서 맨 나중에 난 사람.

3. 다음 단어의 로마자 표기나 외래어 표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수락산 ⇒ Suraksan ② 오죽헌 ⇒ Ojukheon
- ③ ambulance ⇒ 앰블란스 ④ 毛澤東 ⇒ 마오쩌둥

정답 ③ [로마자자와 외래어 표기] 경찰기출 105쪽, 기출OX

<해설> 'ambulance'는 '앰블런스'로 표기한다. [10년 경찰직 정보통신 출제]

[오답 풀이] [기출 선택항]

- ① 수락산[수락산]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1항). 자연 지물명(여기서는 산 이름)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제3장 제6항).
- ② 오죽헌[오주헌] 외래어는 음운 변화의 결과를 반영하여 소리대로 적는다. 다만, 체언에서 받침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6항).
- ④ '毛澤東'을 '모택동'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2절 제1항).

4. 다음 문장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수정한 것은?

희노애락을함께하며가족같이지내던친구가한번놀러오라고연락을했다.

- ① 희노애락을▽함께▽하며▽가족같이▽지내던▽친구가▽한번▽놀러오라고▽연락을▽했다.
- ② 희로애락을▽함께▽하며▽가족▽같이▽지내던▽친구가▽한▽번▽놀러오라고▽연락을▽했다.
- ③ 희노애락을▽함께하며▽가족▽같이▽지내던▽친구가▽한▽번▽놀러▽오라고▽연락을▽했다.
- ④ 희로애락을▽함께하며▽가족같이▽지내던▽친구가▽한번▽놀러▽오라고▽연락을▽했다.

정답 ④ [한글맞춤법] 경찰기출 33쪽·94쪽, 띄어쓰기 기출 지문

<해설> '희로애락, 함께하며, 가족같이, 한번'이 맞다.

• 희로애락: '희로애락(喜怒哀樂)'으로 발음하고 표기한다. '노(怒)'는 활음조 현상에 의해 '로'로도 발음이 되는데, 이러한 속음에 따른 표기도 인정한다. 「한글 맞춤법」 제52항은 한자어에서 본 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함께하며: '함께하다'는 부사 어근 '함께'와 접사 '-하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따라서 '함께하며'는 붙여 쓴다.
- 가족같이: '같이'는 앞에 체언이 올 때 조사이다. 따라서 '가족같이'로 붙여 쓴다. 다만, '같이'는 앞에 부사격 조사 '와/과'나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올 때에는 부사가 된다.

| | |
|----|---|
| 같이 | [1] 격조사 「1」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 눈같이 흰 박꽃. 소같이 일만 하다. 「2」 (때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격 조사. 예) 새벽같이 떠나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단조로운 생활 |
| | [2] 부사 「1」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예)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다/모두 같이 갑시다. 「2」 '어떤 사물과 다름이 없이'를 나타내는 부사. 예) 그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지녔다. [참고] 그는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지녔다. (형용사 '같다'의 관형사형) |

- 한번: 여기서 기회 될 때의 의미이므로 '한번'으로 붙여 쓴다.

| | | | |
|-----|---------------------------------|----|---|
| 한▽번 | 횃수로 1회. 두 번, 세 번 을 넣어 본다. | 한번 | [I] 「명사」 ((주로 '한번은' 꼴로 쓰여)) 지난 어느 때나 기회. [II] 「부사」 「1」((주로 '-어 보다' 구성과 함께 쓰여))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는 말. 「2」 기회 있는 어떤 때에. 「3」 ((명사 바로 뒤에 쓰여))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4」 일단 한 차례. |
|-----|---------------------------------|----|---|

5. 다음 중 밑줄 친 차자 표기의 방식이 다른 하나는?

| | |
|------------|-------------|
| 善化公主主隱 | 善化公主니문 |
| 他①密②只嫁良置古 | 놈 그스지 열어 두고 |
| 薯童房乙 | 맛동바을 |
| 夜③矣④乙抱⑤遣去如 | 바미 몰 안고 가다 |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① [차자 표기] 경찰기출 65쪽, 진도별 모의고사 제1회
 <해설> 우리 고유의 문자가 없던 시대에는 중국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였다. 이를 차자(借字) 표기라고 한다. 차자 표기의 방식에는 '훈차(訓借)와 '음차(音借) 두 가지가 있다. '훈차'는 한자의 뜻만을 빌려 어휘 형태소를 표기하는 방식을, '음차'는 한자의 음만을 빌려 고유명사나 문법 형태소(조사, 어미, 접사)를 표기하는 방식을 말한다.

㉠: 훈차(訓借). 우리말 '그스지'(모르게/몰래)를 표기하기 위해 '그스'는 ㉠'密'(그윽할 밀)의 뜻을 빌려 표기했고, '지'는 ㉡'只'(다만 지)의 음을 빌려 표기했다.

㉢㉣: 음차(音借).

| | |
|-------------|----------------------|
| 善化公主主隱 | 선화 공주님은 |
| 他㉠密㉡只嫁良置古 | 남 ㉠그스㉡지(모르게/몰래) 결혼하고 |
| 薯童房乙 | 맛등서방을 |
| 夜㉢矣㉣卯乙抱㉤遣去如 | 밤㉢에 몰래 안㉣고 가다. |

- 『삼국유사』 권2, 서동요(薯童謠)

| | | | | | | | | | | | | | |
|----|-----|----|----|---|----|----|----|------|----|------|------|----|----|
| | 善 | 化 | 公 | 主 | 主 | 隱 | 他 | ㉠密 | ㉡只 | 嫁 | 良 | 置 | 古 |
| 소리 | 선 | 화 | 공 | 주 | 주 | 은 | 타 | 밀 | 지 | 가 | 아(량) | 치 | 고 |
| 뜻 | 착하다 | 되다 | 귀인 | 님 | -님 | 숨다 | 남 | 그윽하다 | 다만 | 시집가다 | 어질다 | 두다 | 옛 |
| 분석 | 체언 | | | | | 조사 | 체언 | 그스지 | | 어간 | 어미 | 어간 | 어미 |

| | | | | | | | | | | | | |
|----|----|----|---|----|----|-----|-------|---|----|------|----|------|
| | 薯 | 童 | 房 | 乙 | 夜 | ㉢矣 | ㉣卯 | 乙 | 抱 | ㉤遣 | 去 | 如 |
| 소리 | 서 | 동 | 방 | 을 | 야 | 의 | 묘 | 을 | 포 | 견(고) | 거 | 여(다) |
| 뜻 | 마 | 아이 | 방 | 새 | 밤 | 어조사 | 토끼 | 새 | 안다 | 보내다 | 가다 | 같다 |
| 분석 | 체언 | | | 조사 | 체언 | 조사 | 몰(몰래) | | 어간 | 어미 | 어간 | 어미 |

[오답 풀이]

㉢ 우리말 '밤에'(체언+조사)를 '夜矣'로 표기하였다. '夜'(밤 야)에서 뜻을 빌리고, '矣'(어조사 의)에서 음을 빌렸다.

㉤ 우리말 '안고'(어간+어미)를 '抱遣'로 표기하였다. '抱'(안을 포)에서 뜻을 빌리고, '遣'[보낼 견(고)]에서 음을 빌렸다.

• 향찰(鄉札): 신라 때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국어 문장 전체를 적은 표기법. 특히 향가의 표기에 쓴 것을 이른다. 명사 표기에서 벗어나 우리말 문장을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표기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한층 더 발전된 표기법이다. 예를 들어, '隱'과 같은 주제의 보조사, 즉, 문장 내의 문법적 요소는 한자의 음을 따서 표기[音讀]하는 것이 원칙인 데 반해,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는 한자의 뜻을 따서 표기[訓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참고] 이 문제는 16년 1차 경찰기출 문제 유형을 따르고 있다.

| |
|--|
| 1. 밑줄 친 낱말의 차용 방식이 다른 것은? [16년 1차 경찰직] |
|--|

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불·휘 기·픈 ㉠남·근 북·매 아·니 : 월·씨
 ㉡꽃 : 묘·코 여·름 ·하·느·니
 : 시·미 기·픈 ·므·른 ㉢·ᄃᄆ·래 아·니 그·출·씨
 ㉣ :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 ① ㉠에는 주격 조사와 만나 형태가 변한 명사가 포함되어 있다.
- ② ㉡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당시의 표기법에는 어긋난다.
- ③ ㉢에는 현대 국어의 명사 '가물'의 옛 형태가 포함되어 있다.
- ④ ㉣에서 조사가 생략되었다면 '내'의 형태로 쓰였을 것이다.

정답 ① [국어사] 경찰기출 158쪽, 진도별 모의고사 제3회, 기출OX

<해설> • 후기중세 국어에서 '나무'의 형태는 '나모~남'이었다. 단독으로 쓰일 때는 '나모'이나 모음으로 된 조사 앞에서는 끝음절 모음 'ㅁ'이 탈락하고 'ㄱ'이 덧생겨 '남'이 된다.
 • '남근'은 명사 '남'과 보조사 '은'의 구성으로 볼 수 있다. 모음으로 된 조사 앞에서 모음 탈락과 'ㄱ' 첨가 현상이 일어나 체언의 형태가 교체가 예이다. '보조사' '은'과 결합한 구성이므로 '주격 조사'와 만나 형태가 변했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다만, 접속 조사 '와'와 결합할 때는 '나모와'가 된다.

[오답 풀이]

- ② '꽃' [꺄]을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꺄'이다. 후기중세 국어에서 종성은 'ㅅ'을 포함한 여덟 개의 자음(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이 자기 소리를 가졌다. '꺄'는 終聲復用初聲(종성부용초성)의 원칙에 따라 원래 형태를 밝혀 표기된 것이다.
- ③ 'ᄃᄆ래'는 명사 'ᄃᄆ'과 격조사 '래'가 결합된 구성이다. 현대 국어에서 '가뭇'과 '가물'은 복수 표준어이다.
- ④ 체언의 'ㅎ' 종성은 모음으로 된 조어나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나타나지만 단독으로 쓰이면 종성의 'ㅎ'이 탈락되었다. 'ㅎ' 종성 체언 '내ㅎ'은 격조사 '이'와 만나면 '내히'가 되지만, 단독으로 쓰일 경우에는 '내'로 쓰였다.

예 내히, 내해서, 내흠, 내과, 내토, 내 천(川), 냇물(내스물)

<해석>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려, 꽃 좋고 열매 많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뭇에 아니 그쳐서, 내를 이루어 바다에 가나니.

7. 다음 중 한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한글은 창제 당시 28개의 기본자 중 17개가 자음자였으며 모음자 중 4개는 이중모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 ② 한글은 소리 문자이지만 일본의 '가나'와 다른 음소 문자로서 개별 글자가 하나의 음소에 모두 일대일로 대응된다.
- ③ 남한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한글 자모 명칭은 같지만 사전에 올릴 때에 사용하는 한글 자모 순서는 일부 차이가 있다.
- ④ 'ㄱ<ㅋ<ㆁ'과 같이 소리의 세기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자 과정에서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정답 ① [한글] 경찰기출 61쪽, 진도별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해설> 한글은 창제 당시 기본자가 28개였다. 그중 자음자는 17개, 모음자는 11개이다. 모음자 중에서 재출자(再出字) ‘ㅑ, ㅓ, ㅕ, ㅗ’는 이중모음을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② 한글은 표음 문자 중에서도 음소 문자, 나아가 자질 문자에 속한다. 그러나 개별 글자가 하나의 음소에 모두 일대일로 대응되지는 않는다. 우리말을 한글로 표기하는 규칙인 ‘한글 맞춤법’이 표의주의 표기법을 채택한 결과, 형태소를 구분하여 글의 의미는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으나 개별 글자는 음운 규칙에 따라 여러 가지 소리로 날 수 있다.

③ • 명칭

‘ㄱ, ㄷ, ㅅ’을 남한에서는 ‘ㄱ(기역), ㄷ(디귤), ㅅ(시읏)’으로 부르지만, 북한에서는 ‘ㄱ(기억), ㄷ(디음), ㅅ(시읏)’으로 부른다. 또한, 된소리를 남한에서는 ‘ㄱ(쌍기역), ㄷ(쌍디귤), ㅅ(쌍시읏)’ 등으로 부르지만, 북한에서는 ‘ㄱ(된기억), ㄷ(된디음), ㅅ(된시읏)’ 등으로 부른다.

• 자모 배열 순서

- 다음은 북한의 「조선말 규범집」(1988)에 나와 있는 자모의 배열 순서이다.

| | |
|----------|---|
| 자음(19자):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ㅇ) ㅊ ㅋ ㅌ ㅍ ㅎ ㄱ ㄷ ㅅ ㅈ |
| 모음(21자):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ㅞ ㅟ ㅠ |
| 받침(27자): | ㄱ ㄲ ㄴ ㄷ ㄹ ㄷ ㄹ ㄹ ㄹ ㄹ ㄹ ㄹ ㅁ ㅂ ㅅ ㅇ ㅊ ㅋ ㅌ ㅍ ㅎ ㄱ ㄷ |

-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모의 숫자와 기본 글자의 배열 순서는 남한과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초성 ‘ㅇ’은 자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음 항목을 따로 만들어 ‘ㅏ~ㅠ’에 포함하고 있다. 다만 받침 ‘ㅇ’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ㅅ’ 다음에 두고 있다.

- ‘ㄱ, ㄷ’ 등의 겹자음자의 경우 북한은 모든 홀자음자를 배열하고 난 후에 겹자음자를 따로 배열하여 남한과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 ‘ㄲ, ㄴ, ㄷ’과 같은 겹자음자의 경우 북한은 합용병서(서로 다른 두 자음의 결합) 뒤에 각자병서(서로 같은 두 자음의 결합)를 배열하여, 자형 중심으로 ‘ㄱ, ㄲ, ㄴ’처럼 배열하는 남한과 방식을 달리한다.

- 겹모음자의 경우도 북한은 ‘ㅏ, ㅑ, ㅓ’ 등과 같은 홀모음자 뒤에 ‘ㅐ, ㅑ, ㅓ’와 같은 겹모음자를 배열하여 홀모음자와 겹모음자를 자형 중심으로 통합 배열하는 남한과 방식을 달리한다.

④ ‘ㄱ, ㅋ, ㄱ’처럼 형태가 유사한 이유는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기 때문이다. ‘ㄱ → ㅋ’은 제자 과정에서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어 소리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 맞다. 그러나 ‘ㄱ → ㄱ’은 운용 과정에서 병서법(並書法)이 적용되어 된소리를 나타낸 것이다.

8.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올바른 것은?

- ① 이런 날씨에 비를 맞추니 멀쩡한 사람도 병이 나지.
- ② 너라면 아마도 그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 있었을 텐데.
- ③ 우리 선수는 마지막 화살까지도 10점 과녁에 맞혔다.
- ④ 그는 그녀와의 약속 시간을 제대로 맞춘 적이 없었다.

정답 ④ [한글 맞춤법] 경찰기출 85쪽, 모의고사, 기출OX
 <해설> '조절하여 어긋나지 않게 하다.'는 의미에서 '맞춘'이 맞다.

[오답 풀이]

- ① 맞히니. 눈이나 비 등을 달게 하다.
- ② 맞힐. 정답을 골라내다.
- ③ 맞혔다. 목표물에 맞게 하다.

(1) 맞히다 [적중(的中)]

'맞다'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히-'가 붙은 파생어.

- ① 목표물에 맞게 하다. 예) 과녁에 화살을 맞힌다.
- ② 정답을 골라내다. 예) 여러 문제를 더 맞힌다. 퀴즈의 답을 맞힌다.
- ③ 눈이나 비 등을 달게 하다.
 예) 할머니께서는 고추에 이슬을 맞히지 않으려고 명석을 마신다.
- ④ 어떤 좋지 아니한 일을 당하게 하다.
 예) 그렇게 착한 여자에게 바람을 맞히다니 용서할 수 없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소박을 맞히고 나서 두고두고 후회하셨다.
- ⑤ 침, 주사 등으로 치료를 받게 하다. 예) 꼬마들에게는 주사를 맞히기가 힘들다.

(2) 맞추다 [비교, 조정, 조절(調節)] '마추다'는 비표준어

- ①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대어 붙이다.
 예) 문짝을 문틀에 맞춘다.
- ② 대상끼리 서로 비교하다.
 예) 그는 시험지를 정답과 맞추어 보고 나서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 ③ 조절하여 어긋나지 않게 하다.
 예) 간장으로 간을 맞춘다. 카메라의 초점을 맞춘다. 입을 맞춘다.
- ④ 주문하다. 예) 양복을 맞춘다.

9. 다음 중 문장의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러지 말고,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줘.
- ② 선생님, 제 말씀부터 좀 들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③ 정성이 이 정도라면 여간한 성의라고밖에 할 수 없네요.
- ④ 선생님, 선생님께 훈장이 추서됐으니 수여식에 참석하시래요.

정답 ② [올바른 문장] 경찰기출 111쪽, 진도별 모의고사, 마무리 모의고사

<해설> '말씀'은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도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쓰였다. 청자가 선생님
 이므로 상대 높임 종결어미 '-습니다'(아주 높임)를 그에 맞게 사용하였다.

• 말씀: 「1」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 「2」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

[오답 풀이]

- ① 소개해 줘. '소개시키다'는 명사 어근 '소개'에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시키다'가 붙은
 사동사이다. 어근에 접미사 '-하다'를 붙여서 문장 맥락에 맞는 단어가 된다면 사동 접미사 '-시
 키다'를 붙일 이유가 없다.
- ③ 여간한 성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네요. 형용사 '여간하다'는 '아니다', '않다' 따위의 부정어 앞

에 쓰여 '이만저만하거나 어지간하다.'를 뜻하는 말이다. 그런데 위 문장은 '여간한'에 호응하는 부정 서술어가 없어 문장 성분 간에 호응이 되지 않고 있다.

④ 훈장이 수여됐으니. '추서'는 '죽은 뒤에 훈장이 주어지다.'를 뜻하는 말로 살아 있는 사람에게 쓸 수 없는 표현이다. '훈장이 수여되다'가 적절하다.

10. 다음 문장에서 '-었-/-았-/-였-'의 문법적 기능이 밑줄 친 예와 가장 유사한 것은?

그 두 사람은 쌍둥이인 것처럼 서로 정말 닮았다.

- ① 모두가 기다리던 그가 밤늦게 공항에 도착하였다.
- ② 윤희는 예쁜 파란색 모자를 사고서는 방금 떠났다.
- ③ 그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와 달리 정말로 잘생겼다.
- ④ 결국 곧 진실이 드러날 테니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정답 ③ [시제 선어말 어미] 우찬국어 제1권 문법

<해설> 제시 문장의 '닮았다'에서 '-았-'은 현재 지속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시제 선어말 어미이다. 이와 유사한 의미는 ③에 나타난다.

•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었-/-았-/-였-'(이형태)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1」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
 「2」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는 어미.
 「3」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하여진 사실인 양 말할 때 쓰는 어미.

[오답 풀이]

- ①② 사건이 이미 일어났음을 뜻한다.
- ④ 일어나지 않은 일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할 때 쓴다.

11. 다음 밑줄 친 부분을 한자로 표기할 때 적절한 것은?

1.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1.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1. 모든 행동은 질서를 가장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 | | | |
|------|-----|----|
| ㉠ | ㉡ | ㉢ |
| ① 發揮 | 排他的 | 一刻 |
| ② 撥揮 | 排他的 | 一覺 |
| ③ 發揮 | 俳他的 | 一刻 |
| ④ 撥揮 | 俳他的 | 一覺 |

정답 ① [한자어] 우찬국어 제3권 독해

<해설> '發揮(발휘), 排他的(배타적), 一刻(일각)'이 맞다.

- 發揮(발휘): 재능, 능력 따위를 떨치어 나타냄. 發 일으킬 발, 揮 휘두를 휘, 撥 다스릴 발
- 排他的(배타적): 남을 배척하는. 또는 그런 것. 排 밀칠 배, 他 다를 타, 的 과녁 적
- 一刻(일각): 「1」 한 시간의 4분의 1. 곧 15분을 이른다. 「2」 아주 짧은 시간. 一 한 일, 刻 새 길 각
- 一覺(일각): 「1」 한 번 잠에서 깬. 「2」 한 번 깨달음. 覺 깨달을 각

[출처] 公約三章(공약 삼 장) - 한용운

12. 다음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름 장이란 애시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발이 벌여 놓은 전 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훑훑 뉘는다. 마을 사람들은 거지반 돌아간 뒤요, 팔리지 못한 나무꾼 패가 길거리에 ㉠궁싯거리고들 있으나, 석유 병이나 받고 고깃 마리나 사면 족할 이 축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 법은 없다. 촛촛스럽게 날아드는 파리 떼도, 장난꾼 ㉡각다귀들도 귀찮다. ㉢얼금뱅이요 왼손잡이인 ㉣드팀전의 허 생원은 기어코 동업의 조 선달을 나꾸어 보았다.
“그만 걷을까?”

- ① ㉠ :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머뭇거리다.
- ② ㉡ : 곤충의 한 종류로 남의 것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③ ㉢ : 얼굴에 우묵한 마맛자국이 생긴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 ④ ㉣ : 여러 가지 농기구를 파는 작은 가게를 일컫는다.

정답 ④ [고유어] 진도별 모의고사 어휘, 우찬국어 제3권 어휘

<해설> 드팀전: 예전에, 온갖 피륙을 팔던 가게. '피륙'은 아직 끊지 아니한 베, 무명, 비단 따위의 천을 통틀어 이르는 말.

[오답 풀이]

- ① 궁싯거리다: 「1」 잠이 오지 아니하여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거리다. ≒궁싯대다. 「2」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머뭇거리다. ≒궁싯대다. [13년 국가직 7급]
- ② 각다귀: 「1」 『동물』 각다귀과의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 모양은 모기와 비슷하나 크기는 더 크다. 몸의 길이는 2cm 정도, 날개는 2cm 정도이고 회색이며, 다리가 길다.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꾸정모기·대문(大蚊)·알락다리모기. 「2」 남의 것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얼금뱅이: 얼굴이 얼금얼금 얇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출처]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13. 다음 중 속담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둥 치면 들보가 운다 : 전혀 관계가 없는 일에 억울하게 배상을 하게 된다.
- ② 게도 구멍이 크면 죽는다 : 분수에 지나치면 도리어 화를 당하게 된다.
- ③ 토끼 덮에 여우 걸린다 :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의외로 더 큰 이익을 얻게 된다.
- ④ 소경이 개천 나무란다 : 자기의 과실은 생각지 않고 상대만 원망한다.

정답 ① [속담] 우찬국어 제3권 어휘

<해설> 기등을 치면 대들보가[들보가/붓장이] 운다[울린다]

「1」 직접 맞대고 탓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넌지시 말을 하여도 알아들을 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주(主)가 되는 대상을 탓하거나 또는 그 대상에 일격을 가하거나 하면 그와 관련된 대상들이 자연히 영향을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꽃 디고 새 닙 나니 녹음(綠陰)이 싹렸는디, 나위(羅幃) 적막(寂寞)하고 슈막(繡幕)이 뷔여 있다. 부용(芙蓉)을 거더 노코,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굿득 시름 한디 날은 엇디 기똥던고. 원앙금(鴛鴦衾) 버혀 노코 오식선(五色線) 플터 내여 금자히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 내니, 슈품(手品)은 ㄱ니와 제도(制度)도 ㄱ 즐시고. 산호슈(珊瑚樹) 지게 우히 백옥함(白玉函)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바라보니, 산(山)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천리(千里) 만 리(萬里) 길흘 뉘라셔 차자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나) 건곤(乾坤)이 폐식(閉塞)하야 백설(白雪)이 훈 빗친 제, 사름은 ㄱ니와 놀새도 굿쳐 있다. 쇼상 남반(瀟湘南畔)도 치오미 이러커든 옥누 고쳐(玉樓高處)야 더욱 닐러 므슴하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여 님 겨신 디 쏘이고져. 모첨(茅簷) 비친 히를 옥누(玉樓)의 올리고져. 홍상(紅裳)을 니믹초고 칩슈(翠袖)를 반(半)만 거더, 일모 슈둑(日暮脩竹)의 험가림도 하도 할샤. 다른 히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청등(靑燈) 거른 것티 던공후(鈿箜篌) 노하 두고, 쏘의나 님을 보려 턱 밧고 비겨시니, 양금(鴛鴦)도 초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썰고.

(다) 흐르밤 서리김의 기러기 우러 넬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슈정념(水晶簾) 거든말이, 동산(東山)의 둘이 나고, 북극(北極)의 별이 뵈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쥐여 내여 봉황누(鳳凰樓)의 붓티고져. 누(樓) 우히 거러 두고 팔황(八荒)의 다 비최여, 심산궁곡(深山窮谷) 점낫 ㄱ티 밍그쇼셔.

(라) 동풍(東風)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창(窓) 밧기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피여세라. 굿득 냉담(冷淡)헌디 암향(暗香)은 므스일고. 황혼(黃昏)의 둘이 조차 벼마티 빗최니, 늦기논 듯 반기논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미화(梅花)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14. 이 글을 시간의 흐름에 맞게 배열한 것은?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나) → (라) → (다)
- ③ (라) → (가) → (다) → (나)
- ④ (라) → (나) → (가) → (다)

정답 ③ [조선전기 가사] 경찰기출 154쪽, 동형모의고사

<해설> 본사 부분은 '봄→여름→가을→겨울'의 전개 과정을 보여 준다.

(라)의 '동풍'(東風, 봄바람)→(가)의 '녹음'(綠陰)→(다)의 '서리김'(서리 기운)→(나)의 '백설'(白雪)을 통해 계절의 흐름을 알 수 있다.

[해석]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라) 봄바람이 문득 불어 쌓인 눈을 헤쳐 내니 창 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뜩이나 쌀쌀하고 적막한데 그윽한 향기는 무슨 일인가. 황혼의 달이 따라와 베갯머리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이 달이)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자. 임이 너(매화)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

(가)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비단 휘장이 적막하고 수놓은 장막이 비어 있다. 연꽃 수놓은 휘장을 걷어 놓고 공작을 수놓은 병풍을 돌려두니,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 그리 길었던가. 원앙 비단을 베어 놓고 오색실 풀어내어 금으로 만든 자로 재어서 임의 옷 지어내니,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격식도 갖추었네. 산호나무로 만든 지게 위의 흰 옥으로 된 함에 담아두고 임에게 보내고자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만 리 길을 누구라서 찾아갈까. 이르거든 (이 함을) 열어 보고 나를 본 듯 반기실까.

(다)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며 갈 때에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 수정 발을 걸었더니, 동쪽 산에 달이 뜨고 북극에 별이 보이니, 임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맑은 빛을 쥐어 궁궐에 부치고자. (이 달빛을) 누각 위에 걸어두고 온 세상 다 비추어 깊은 산 어두운 골짜기도 대낮같이 만드소서.

(나) 하늘과 땅이 (열어붙어) 생기가 막히고 눈에 덮여 세상이 흰색일 때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날짐승도 자취 없다. 소상강 남쪽도 추위가 이 같거늘, 임 계신 곳이야 더욱 말해 무엇하리. 따뜻한 봄기운 일으켜 임 계신 곳 쬐이고자. 초가집 처마에 비친 해를 대궐에 올리고자. 붉은 치마를 여미어 입고 푸른 소매를 반만 걷어 해 저물 무렵 긴 대나무에 (기대니) 헤아림이 많기도 많구나. 짧은 해가 쉬어 저서 긴 밤을 쫓곳이 앓아, 푸른 등 걸어 놓은 곁에 자개로 꾸민 공후 놓아두고, 꿈에나 임을 보려 턱 받치고 기대니, 원앙 이불이 차기도 차구나. 이 밤은 언제 썰까.

15. 이 작품의 주제를 연군지정(戀君之情)이라 할 때, 각 단락에 나타난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자신의 정성을 임금에게 전하고자 함.
- ② (나) - 임금의 건강을 염려하고 임금을 그리워 함.
- ③ (다) - 자신과 임금이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함.
- ④ (라) - 임금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알리고자 함.

정답 ③ [조선전기 가사] 동형모의고사, 우찬국어 제2권 문학

<해설> (다)에서 화자는 임금에게 달빛을 보내 임금의 선정(善政)을 소망하고 있다.

(이 달빛을) 누각 위에 걸어두고 온 세상 다 비추어 깊은 산 어두운 골짜기도 대낮같이 만드소서.

• 연군지정(戀君之情): 임금을 그리워하는 신하의 간절한 마음.

[오답 풀이]

- ① 옷을 지어 임금에게 전하러 한다. 옷을 짓는 화자의 정성이 나타난다.
- ② 햇빛을 보내어 임금에게 쬐이고자 한다. 후반부에 외로움 속에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④ 매화를 꺾어 임금에게 보내려 한다. '매화'는 변함없는 자신의 마음을 뜻한다.

※ [16 ~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쪽도 짚검볼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형겅 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왓장도 닭의 깃도 개 터럭도 타는 모닥불

㉡재당도 초시도 문장(門長)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위도 ㉢갓사둔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땀쟁이도 큰 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상하니도 ㉣똥동발이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16.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닥불을 함께 쪼며 개인적 삶을 긍정하고 있다.
- ② 감각적이고 토속적인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 ③ 1연과 2연은 동일한 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3연에서 불행한 가족사와 민족사를 접목시키고 있다.

정답 ① [현대시] 진도별 모의고사

<해설> 모닥불을 함께 쪼며 공동체적 유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모닥불은 1연에서 나열하는 버려진 사물들을 모두 태워 2연의 공동체에게 온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모닥불은 버려진 것을 태워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해 주는 존재이자, 불을 쪼려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동체의 중심이다.

[오답 풀이]

- ② 일상생활에 쓰이는 구체적 사물을 감각적이고 토속적인 언어로 나열하고 있다.
- ③ 보조사 '도'를 통해 유사한 대상과 대비적 대상을 나열하고, 동일 구조를 반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을 통해 쓸모없는 것을 태워 공동체에 온기를 주는 모닥불의 속성, 사람과 동물이 평등하게 모닥불을 쪼고 있는 모습이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 ④ 3연에서 할아버지의 슬픈 사연은 곧 민족의 슬픈 역사를 암시하고 있다. 모닥불에는 할아버지의 슬픈 사연이 있다. 여기서 '할아버지'는 슬픈 역사를 지닌 사람들을 대변하는 존재로 볼 수도 있다. 모닥불은 그런 사람들이 등글게 모여 앉아 함께 불을 쪼 수 있는 자리이다.

<해제> 1. 길잡이: 모닥불은 버려진 것을 태워 공동체에 온기를 주는 존재이다. 이 시는 이러한 모닥불의 속성을 통해 모든 존재와 민족의 슬픈 역사를 포용하는 공간, 나아가 조화롭고 평등한 공동체 정신을 보여준다.

| | |
|----|------------------|
| 1연 | 모닥불에 타는 사물들 |
| 2연 | 모닥불을 쪼는 사람들과 짐승들 |
| 3연 | 할아버지의 어릴 적 사연 |

2. 주제: 조화와 평등을 지향하는 공동체 정신

3. 특징

- ①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회상이 대비를 이룬다.
- ② 사물이나 사람의 열거가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
- ③ 토속어를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느끼게 한다.

[참고] 백석의 「모닥불」은 14년 국가직 9급, 16년 법원직에서 다루어진 작품이다.

17. 시어를 풀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가족신의 밀창
- ② ㉡ : 아버지의 사촌 형제
- ③ ㉢ : 새 사돈
- ④ ㉣ : 딸려 붙었던 것이 다 떨어지고 몸뚱이만 남은 물건

정답 ② [현대시] 진도별 모의고사

<해설> '재당(齋堂)'은 재실(齋室: 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지은 집)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문중 회의를 주관하던 집안 어른을 말한다.

- 새끼오리: 새끼줄. '오리'는 '올'의 평안도 방언이다.
- 개니빠다: 개의 이빨
- 너울쭈: 널쭈. 널빤지 조각
- 짚검불: 검불은 가느다란 마른 나뭇가지, 마른 풀, 낙엽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초시: 과거의 첫 시험. 또는 그 시험에 급제한 사람. 예전에, 한문을 좀 아는 유식한 양반을 높여 이르던 말
- 문장(門長): 한 문중(門中)에서 항렬과 나이가 제일 위인 사람

※ [18~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청하기를,
“선생님의 덕을 오랫동안 흠모하였습니다. 오늘 밤 선생님께서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싶사옵니다.”
하니, 북곽 선생이 옷깃을 가다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시경’을 읊었다.
“월양새는 병풍에 그려져 있고 / 반짝반짝 반딧불 날아다니는데 / 크고 작은 이 가마솥들은 / 어느 것을 모형 삼아 만들었나?”
그러고 나서
“이는 흥(興)이로다.”
하였다.
다섯 아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기를,
“‘예기(禮記)’에 과부의 집 문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법이라고 했는데, 북곽 선생님은 현자가 아니신가.”
“정나라 도읍의 성문이 허물어진 곳에 여우가 굴을 파고 산다더라.”
“여우가 천년을 묵으면 요술을 부려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다더라. 그러니 이는 여우가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게 아닐까?”
……(중략)……

(나) 이에 다섯 아들이 함께 에워싸고 공격하니, 북곽 선생은 몹시 놀라 뺑소니를 치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대문을 나서자 줄 달음치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에 빠져 버렸다. 그 속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구덩이에서 기어 올라와 고개를 내놓고 바라보았더니, 범이 길을 막고 있었다.

(다) 범은 얼굴을 찌푸리며 구역질을 하고, 코를 막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숨을 내쉬고는,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하였다.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 와서, 세 번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는,

“범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 하겠사옵니다. 대인(大人)은 그 가족 무늬가 찬란하게 변하는 것을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며, 사람의 자식은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지요. 명성이 신령스러운 용과 나란히 드높아, 하나는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는 구름을 일으키니, 하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하옵니다.”

하였다. 그러자 범은 이렇게 꾸짖었다.

(라) “가까이 오지 마라! 예전에 듣기를 유(儒)는 유(諛)라더니,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이제 급하니까 면전에서 아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신뢰하겠느냐?”

「호질」 <해제>

1. 길잡이: ‘호질’이란 호랑이의 질타를 뜻한다. 호질에서 연암은 호랑이의 입을 빌려 ‘북곽(北郭) 선생’과 ‘동리자(東里子)’로 대표되는 양반 계층의 위선적 행동과 타락한 도덕관념을 풍자한다.

2. 작가: 박지원(朴趾源, 1737~1805)

3. 줄거리

| | |
|----|---|
| 발단 | 범이 부하들과 저녁거리를 의논하다가 청렴한 선비의 고기를 먹기로 결정하고 마을에 내려온다. |
| 전개 | 도학자 북곽(北郭) 선생은 열녀 표창까지 받은 이웃 과부 동리자(東里子)와 은밀하게 만난다. |
| 위기 | 북곽을 여우의 환신으로 오해한 동리자의 다섯 아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뛰어들자 북곽 선생은 황급히 도망치다 똥구덩이에 빠진다. |
| 절정 | 겨우 기어 나왔지만 그 자리에 큰 범 한 마리가 입을 벌리고 있자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목숨을 비니 범이 그의 위선을 꾸짖는다. |
| 결말 | 날이 새고 한 농부가 북곽 선생에게 머리를 조아린 이유를 물으니, 그제야 범이 간 사실을 알고 농부에게 위선적인 선비의 모습을 보인다. |

4. 주제: 양반 계층의 위선을 비판함.

5. 특징

① 작가의 풍자의식

| | 북곽 선생 | 동리자 |
|--|---------------------|-------------------------------------|
| 표면적 | 학식과 인품을 갖춘 도학자 | 열녀(烈女)로 표창 받은 과부 |
| | 유교적 질서에서 이상화된 인물 | |
| 이면적 | 욕정을 숨기고 고상한 말로 수작함. | 성이 다른 다섯 아들을 두고 있으며 북곽 선생과 은밀하게 만남. |
| |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인물 | |
| ↓ | | |
| 당대 지배층의 위선과 부도덕을 신랄하게 풍자 | | |
| ② 의인화된 범을 통해 부정적 인물인 '북곽 선생'의 위선과 허세를 우회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 | |

18. 이 글과 주제 면에서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붉가버슨 兒孩(아해) | 들리 거미줄 테를 들고 기川(천)으로 往來(왕래)하며,
붉가송아 붉가송아 저리 가면 죽느니라. 이리 오면 스느니라. 부로나니 붉가송이로다.
아마도 世上(세상)일이 다 이러훈가 흐노라.
- ②宅(택)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사야 네 황화 그 무엇이랴 워는다 사자
外骨內肉(외골내육) 兩目(양목)이 上天(상천) 前行後行(전행후행) 小(소)아리 八足(팔족) 大(대)아리 二足(이족) 淸醬(청장) 아스속 하는 동난지이 사오
장사야 하 거북이 워지 말고 게것이라 하렴은.
- ③靑天(청천)에 뵈는 기러기 훈 雙(쌍) 漢陽城臺(한양성대)에 잠간 들러 쉬여 갈다.
이리로서 저리로 갈 제 내 消息(소식) 들어다가 님의게 傳(전)하고 저리로서 이리로 올 제 님의 消息(소식) 드러 내손디 브디 들러 傳(전)하여 주렴.
우리도 님 보라 밤비 가는 길히니 傳(전)할 동 말 동 하여라.
- ④두터비 攄(파)리를 물고 두험 우희 치드라 안자
것년 山(산) 바라보니 白松鵲(백송골)이 써 잇거늘 가슴이 금 즉 하여 풀덕 뛰여 내뵈다가 두험 아래 자빠지거고
모쳐라 놀랜 널식망정 에혈질 번하과라.

정답 ④ [조선후기 문학] 경찰기출 159~161쪽, 진도별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해설> 이 글은 박지원이 지은 한문소설 「호질(虎叱)」의 일부이다. 수절 과부 동리자와 도학자 북곽선생의 위선적인 행동을 희화화하여 조선후기 사대부 계층의 허위의식과 위선적 행동을 풍자하고 있다. 주제 면에서 이 글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④의 사설시조이다. 이 시조는 파리(서민)를 물고 허세를 부리는 두꺼비가 송골매(중앙 관리)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희화화하여 조선후기 탐관오리의 허세와 횡포를 고발하고 있다. ④는 작자가 밝혀지지 않은 조선후기 사설시조이다.

④ [해석]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하얀 송골매가 떠 잇거늘, 가슴이 섬뜩하여 풀쩍 뛰여
 내달다가 두엄 아래 자빠지는구나.
 “아이고 날랜 나였기 망정이지 멍들 뻘했구나.”

[오답 풀이]

①~③은 모두 조선후기 사설시조에 해당한다.

① 서로 속이고 속는 세태, 약육강식의 당대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 이정신의 시조.

[해석] 벌거벗은 아이들이 거미줄 체를 들고 시냇가를 왔다 갔다 하며,
 “발가숭이(고추잠자리)야 발가숭이야, 저리 가면 죽고 이리 오면 사느니라.” 하고
 부르는 이 발가숭이(벌거벗은 아이들)로다.
 아마도 세상일이 다 이러한가 하노라.

② 어려운 한자를 쓰며 유식한 체하는 게절 장사를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다. 작자 미상.

[해석] 사람들과 동난젓(게절) 사오. 저 장수야, 네 물건 그 무엇이랴 외치느냐, 사자.
 걸은 뼈에 속은 고기요, 두 눈이 하늘로 솟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작은 다리
 여덟 개, 큰 다리 두 개, 맑은 간장에 (씹으면) 아사삭하는 동난젓 사오.
 장사야, 그리 거북하게 외치지 말고 게절이라 하렴.

③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임에게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작자 미상.

[해석] 푸른 하늘에 떠 있는 기러기 한 쌍아, 한양성 누대에 잠깐 들러 쉬어 가려느냐.
 여기서 저기로 갈 때 내 소식 받아서 임에게 전하고 저기서 여기로 올 때 임의 소식
 들어 나에게 부디 들려 전하여 주렴.
 우리도 임 보러 바삐 가는 길이니 전할 동 말 동 하구나.

19. (가)~(라)에 나타난 상황을 한자 성어로 표현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表裏不同 ② (나) - 命在頃刻
 ③ (다) - 巧言令色 ④ (라) - 櫛風沐雨

정답 ④ [한자성어] 경찰기출 159~161쪽, 진도별 모의고사 어휘, 동형 모의고사
 <해설> (라)는 북관선생의 위선적인 행동을 호랑이가 꾸짖고 있는 장면이다. ‘즐풍목우(櫛風沐雨)’는 온갖 고생을 다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므로 (라)의 내용과 맞지 않다.

| | |
|--|--|
| ① 櫛風沐雨 | 즐풍목우 櫛 빗 즐, 風 바람 풍, 沐 머리 감을 목, 雨 비 우 |
| 머리털을 바람으로 빗질하고 몸은 빗물로 목욕한다는 뜻으로, 오랜 세월을 객지에서 방랑하며 온갖 고생을 다함을 이르는 말. ≒즐우·즐풍. [16년 2차 경찰직] | |

[오답 풀이]

| | |
|---|--|
| ① 表裏不同 | 표리부동 表 겉 표 裏 속 리(이) 不 아닐 부 同 한가지 동 |
|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 [16년 기상직 9급, 국회직 8급 14년] | |

| | |
|---------------------------|---|
| ② 命在頃刻 | 명재경각 命 목숨 명, 在 있을 재, 頃 이랑 경, 刻 새길 각 |
| 거의 죽게 되어 곧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룸. | |

| | |
|--|---|
| ③ 巧言令色 | 교언영색 巧 공교할 교, 言 말씀 언, 令 하여금 영(령), 色 빛 색 |
|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 [16년 국가직 9급, 16년 기상직 9급] | |

20.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켜왔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예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조린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 ① ㉠ : 아버지에 대한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 ② ㉡ :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보여 준다.
- ③ ㉢ : 삶의 터전을 빼앗기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 ④ ㉣ : 난쟁이가 가족의 어려운 삶의 형편을 보여 준다.

정답 ③ [현대소설] 박우찬 법원국어 500제

<해설> 어머니는 철거 계고장을 두고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을 통해 삶의 터전을 빼앗기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난쟁이라는 겉모습만 보고, 아버지의 꿈과 희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지옥과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보여 준다.
- ④ 밥상을 통해 난쟁이가 가족의 가난한 삶을 보여 준다.

[출전]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